

보도시점 : 2025. 1. 22.(수) 14:00 이후(1. 23.(목) 조간) / 배포 : 2025. 1. 22.(수)

‘안전’ 최우선,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

-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,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수립 및 즉시 착수 -
- 1) 시설 개선, 2) 안전구역 확대, 3) 제도개선, 4) 상시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반영 -
- 가덕도·대구경북통합·제주제2·새만금 등 신공항에도 개선방안 선제 적용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(2회), 관계기관 회의(1.13일), 전문가 회의(1.17일)를 거쳐 ‘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-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 점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,
 - * (방위각시설 특별점검)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등 점검(1.2일~8일)
(공항시설 특별점검)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등 점검(1.13일~21일)
-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, 안전구역 권고 수준(240m) 확보,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(EMAS) 도입 검토, 안전 관련 규정 정비,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되었다.

< 특별안전점검 결과 >

-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, 김해국제공항(2개소), 제주국제공항, 광주공항, 여수공항, 포항경주공항, 사천공항(2개소) 등 총 7개 공항, 9개 시설물로 확인되었다.
- 권고 수준(240m)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, 김해국제공항, 여수공항, 포항경주공항, 사천공항, 울산공항,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.

- 그 외 ▲배수 불량 사례 ▲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(7.5cm)을 일부 초과한 사례 ▲항공기 접근등화(진입등)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되었다.
-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 운영·관리 기관에게 즉시 조치하고,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.

< 방위각시설 등 안전 개선방안 >

- 우선,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(9개 시설)에 대해서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하여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.
-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,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.
 - * 사업비, 시공성, 안전성 등 감안하여 최적대안을 결정하여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,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
-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(240m)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,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(EMAS)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.
 - *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(EMAS, 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)은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,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하는 시설
-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(1월 구성)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,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 방안을 ‘항공안전 혁신방안(4월 발표 예정)’에 반영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, 이·착륙 브리핑 강화, 고경력 조종사 편조,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‘긴급 안전운항대책’을 병행할 방침이다.

< 기존 공항 개선계획 >

□ 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공항별 개선계획은 다음과 같다.

-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.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(약 4.0m)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며,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(208m)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.
-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, 기존 안전구역(활주로 양측 모두 92m)은 확대하거나,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(EMAS)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(2개소)가 약 80~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, 동편 활주로 북측(236m)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.
-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, 안전구역(현재 122m, 177m)을 확대하거나,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(EMAS)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(북측은 기철거)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,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.
-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하여,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,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·북측의 안전구역(현재 90m)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(EMAS) 설치를 추진한다.
- 그 외 인천, 김포, 대구, 청주, 양양,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되었고,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.

< 신공항 안전관리 방안 >

-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‘부러지기 쉬운 재질’과 ‘지면 형태’로 설계·시공하고, 흑산·울릉·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(비계기 등)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.
-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, 대구경북통합신공항, 제주제2공항,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, 방위각 시설도 ‘부러지기 쉬운 재질’과 ‘지면형태’로 설치할 계획이다.
- 흑산, 울릉,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.

<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>

-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,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* 공항시설법, 설치기준, 운영기준 등 관련된 하위 지침·훈령·예규·고시 등 전체 정비
- 또한,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·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*에 안전 전문가 보강,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,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(가칭) 신설 등도 추진한다.
 - * (위원장)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/ (구성) 공공분야 및 공항·건축·토목 등 90여명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,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(2월)과 항공안전 혁신방안(4월)도 수립할 계획이다.”라며,
 - “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, 도로·철도·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 및 협조부서	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 (044-201-4328)
		담당자	사무관	양익준 (044-201-4333)
	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	박상민 (044-201-4347)
		담당자	사무관	공두영 (044-201-4344)
	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	책임자	팀 장	이호준 (044-201-4137)
		담당자	사무관	소지섭 (044-201-4138)
	항공안전정책관 항행위성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선우 (044-201-4356)
		담당자	사무관	양창생 (044-201-4357)
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강정현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1-4271)
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박준수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하후호 (044-201-4303)
	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	책임자	팀 장	홍복의 (044-201-5201)
		담당자	사무관	한규호 (044-201-5208)
	대구경북통합 신공항건설추진단	책임자	팀 장	박태진 (044-201-5215)
		담당자	사무관	곽희종 (044-201-5212)
	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	책임자	실 장	양현배 (02-2660-2851)
		담당자	부 장	이상익 (02-2660-2881)
한국공항공사 공항시설실	책임자	실 장	정호경 (02-2660-2421)	
	담당자	차 장	장태준 (02-2660-2379)	

세부 추진 과제		소관 과	
방위각	■ 공항별 방위각시설 시설개선 이행 방안·계획 수립 및 관리	국토부	항행위성정책과
	■ 공항별 방위각시설 개선 공사 방식 검토	국토부	항행위성정책과 공항운영과
	■ 공사 기간 중 정밀·비정밀 운항 검토	국토부	항공운항과 항공교통과
	■ AIP, NOTAM 발행 등 공항 안전 운영	국토부	공항운영과
	■ 방위각시설 개선 공사 발주, 이행 및 준공 관리·감독	국토부	항행위성정책과
	■ 방위각시설 개선 공사 준공 이후, 운영 계획 마련	국토부	항행위성정책과
중단 안전 구역	■ 기존 공항 중단안전구역 확보 방안 마련, 계획 수립·관리	국토부	공항운영과
	■ 신공항 중단안전구역 확보 및 설계·준공 관리	국토부	공항건설팀 가덕도추진단 TK추진단
EM AS	■ EMAS 국내 적용 방안 등 기술 검토용역	국토부	공항건설팀
	■ 기존 공항 EMAS 검토 및 설치, 운영 계획 수립·관리	국토부	공항운영과
	■ 신공항 EMAS 검토 및 설치 방안 마련	국토부	공항건설팀 가덕도추진단 TK추진단
조류 예방	■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계획 수립 및 이행	국토부	공항운영과
	■ 신공항 조류 현황 조사, 조류 예방 강화방안 수립	국토부	공항건설팀 가덕도추진단 TK추진단